



양계 업계 뉴스 초점

홍보부

뉴스 초점

농림부, 농업법인 일제 정비

2년 연속 적자 법인 해산조치

그간 농림부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추진하여 육성해 온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지난 2년간 연속적자를 낸 57개 법인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지원과 자진해산 및 3자 이양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지원하는 3천2백97개 법인의 경우 (총 법인 5천8백9개소) 운영실적이 없는 법인 (22개소)은 보조금 및 융자금 회수, 운영중단 법인(35개소)은 자금회수나 활성화 방안모색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부지원이 없지만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7백61개소 법인도 자진해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육계·계란가격 등락 폭 커

사육농가 어려움 가중

경기침체 하에서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유통과정에서 과도한 물량 확보와 방출이 반복되면서 농장 출하가는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초복 직전에 육계의 경우 kg당 출하비가 1,800원선까지 상승하였다가 중복 이후인 월말경에는 1,000원선까지 하락하였는가 하면, 계란도 체화량이 심하다가 갑자기 큰알을 중심으로 품귀현상을 빚어 고시가가 인상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취가격은 고시가보다 낮아 농가의 채산성은 최저점을 향해 가고 있어 도산농가가 늘 전망이다.

배합사료가격 인하

환율하락으로 5%선 내리

지난해말 외환위기로 배합사료가격이 상승하여 40%가 넘게 인상된 바 있다. 양계농가는 배합사료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가중되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다행히 환율이 다소 안정되어감에 따라 배합사료가격도 하향세로 돌아서 지난 4월, 6월에 이어 7월에 약 5%대가 인하되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환율이 계속 인하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시가 없기 때문에 대폭적인 배합사료가격 인하는 불투명한 상태이고, 오히려 업계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환율이 재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어 다소 불안한 상태이다.

닭고기 수입량 예상보다 많아

6월중 950여톤 수입

환율이 높아 수입닭고기의 국내 반입은 극소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였으나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약 4,262톤이 반입된데 이어 6월에만 950여톤이 수입이 되어 자칫 연말까지 1만톤대가 수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 가축신규 사육 제한

계분처리규제 한층 강화될 듯

환경부는 지난 1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팔당호, 대청호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99년부터 가축의 신규사육이 엄격히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축산폐수 및 생활오

처리의 전문업체만이 시공, 관리토록 하고 실시공에 대한 개선책임도 시공업체가 지게 된다. 상수원 보호 특별대책지역 등 주변지역에서는 가축의 신규사육이 전면 제한되는데 사육제한 규모는 돼지의 경우 50~100마리 미만, 제한거리는 상수원에서 500m~1,000m 범위 내에서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부 등 각 부처와 협의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하게 된다.

서울경기양계축협

용인집하장 개점

경제난으로 계란소비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용인지역의 계란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경기양계축협(조합장 최준구)은 용인집하장을 개설하고 지난 2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서울경기양계축협은 동두천, 포천, 광주, 안성에 이어 5번째 계란 집하장을 설치하여 유통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점한 용인집하장은 건평 351평에 시간당 8만개 다이아몬드 선별기를 설치하여 47개 조합원이 이용하게 된다.(0335-33-5352)

축산법 개정될 듯

등록, 허가제 폐지, 대기업 금지

축산법이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될 내용중 주관심사는 종축업, 부화업, 축산업의 등록·허가제를 폐지하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는 계속 금지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도 가축인공수정소, 송아지생산안정제 세부운영규정 제정, 도축장 등급판정소 설치 등 대폭적인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계